



# 이정우

문학작품에서 영감 얻는 패션디자이너 이정우



## 끝없이 이어지는 패션디자이너의 책에 대한 사랑고백

패션과 문학? 언뜻 생각하면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장르다. 최신 트렌드로 무장한 모델과 허름한 차림으로 헌책방을 서성이는 독자를 나란히 세워놓은 것만큼이나. 하지만 이런 편견의 울타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드는 디.자.이.너.가 있다.

디자이너 이정우. 2세대 디자이너(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녀의 어머니는 디자이너 이영희)라는 꼬리표를 확실하게 때버리고 자신만의 세계를 선보인 지 어느덧 수년이 지난 중견 디자이너다.

그녀의 일 년은 두 개의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금방 지나간다. 여름옷과 겨울옷을 만드는 동안 그녀는 무수한 트렌드와 패션피플들을 만나고, 파리와 밀라노를 오가며 쇼를 준비한다. 화려한 무대와 파티들도 빠질 수 없는 일상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순간보다 서재 앞에서 한 권의 책을 뽑아드는 순간을 더 아낀다.

“책이 없으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해요. 그것도 여러 권의 책이 필요하죠. 난독에 다독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여섯 권의 책이 주변에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생긴 습관이라 이젠 고쳐지지 않네요.”

여기저기 조금씩 비치한 초콜릿을 숨겨놓고 먹듯 기분과 집중력에 따라 책을 읽는 것. 이것이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호기심이 다양한 탓에 한 가지 맛보다 여러 맛을 동시에 음미하는 쪽에 길이 들었다고 한다. 그녀에게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일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럽게 작업에 영향을 끼쳐 시를 테마로 한 옷이 만들어졌다. 어떤 때는 아예 황진이의 사랑 시를 테마로 잡은 컬렉션을 열기도 했다. 이 쇼는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음악에서 영감을 얻는 디자이너는 흔하지만 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디자이너는 드물기 때문이다.

“디자이너와 시는 어떤 면에서 닮아 있어요. 작가가 하나의 주제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듯 디자이너도 하나의 테마를 주조로 옷을 만들어 내거든요. 시의 심상이나 이미지를 이정우만의 언어로 번역해 보자. 황진이의 시를 옷의 버전으로 풀어내 보자는 게 당시 저를 사로잡은 생각이었죠.”

이제 조금 더 그녀의 독서편력으로 들어가 보자. 가장 입시지옥이 치열하던 때에 학창시절을 보낸 그녀는 과외와 학교 공부로 채워지는 나날 속에 지쳐가고 있었

다. 이때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친구는 뜻밖에도 하이디였다. 하이디? 그렇다. 알프스에 사는 그 시골소녀 말이다.

“아침에 머리감을 시간이 없어서 밤에 머리를 감고 잤어요. 머리가 마르는 동안 《알프스의 소녀》를 꺼내들었지요, 그리고 날마다 그 책만 읽는 거예요.”

클라라가 하이디 때문에 건강해지듯 그녀의 대학시절도 수많은 책들로 살찌워졌다. <창작과 비평>과 <문학사상>을 정기 구독하면서 모종의 균형감을 쌓아갔다. <창작과 비평>을 통해 염무웅, 이영희 등 대가의 글을 가슴 떨리게 읽는 한편, 이어령 선생이 편집주직으로 있던 <문학사상>을 통해 신작이나 문예 트렌드들을 놓치지 않았다. 문학에만 편식한 것은 아니었다. 철학이나 미학 등 인문학 텍스트들도 빼놓을 수 없는 먹이감이었다. 실제로 그녀의 서재엔 다수의 철학서와 인문서들이 꽂혀 있었다.

“위대한 작가들이야 셀 수 없이 많지만 가장 사랑하는 작가는 슈테판 츠바이크예요. 책을 볼 때마다 이 분이 살아 있어서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츄츄하고 사려 깊은 그의 문장과 시선을 좋아한다는 그녀는 그 밖에도 에리히 프롬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남자라면 사랑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책을 읽는 동안 작가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 죽은 작가들일수록 더욱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한편 그녀는 작품뿐 아니라 언어 자체에도 관심이 많았다. 영어와 불어는 자유롭게 읽고 쓰고 일어에도 능통하다. 만약 자신이 다시 전공을 택한다면 영문학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올해 목표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원서로 읽는 것.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꼭 이루겠다는 결심이다. 옛날 영어를 익히기 위해 사전도 새로 사들 만큼 준비도 철저하다.

“책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에게 위안만 주는 친구 같아요. 인생이 조금씩 복잡하고 고단해지면서 사람들은 위안거리를 찾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주고받는 상대적 측면이 있잖아요. 그에 비해 책은 일반적으로 내게 기쁨을 주는 존재죠”

스스로 ‘내향적 성향이 짙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책에 대한 사랑과백은 끝없이 이어졌다. 가벼운 잡지만 바스락거리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 늘 묵직한 책을 끼고 사는 그녀는 같은 패션인인 <GQ> 이충걸 편집장이 동인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르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고 한다.

독서 외에 영화와 전시회도 빠지지 않고 다닌다는 이 부지런한 예술애호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모든 디자이너가 그녀처럼 자기 세계를 넓히는 일에 부지런하다면 결코 표절하는 작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패션도 표절문제가 불거지곤 하니까 말이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조화’를 자신의 주된 감성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이러한 ‘균형추’가 서재에 꽂힌 책들에 빛지고 있다고 말한다.

끝으로 그녀는 장자를 인용하며 자신의 풀리지 않는 명제를 털어놓았다.

“나룻배가 강을 건너는데 저쪽에서 다른 배가 와서 충돌하게 되요. 두 배에서 다툼이 일자 장자는 말하죠. 싸우지 말고 빈 배로 만들어라. 그 ‘빈 배’라는 말이 이상하게 저를 놔주지 않아요. 나 자신을 빈 배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반문을 끝없이 하게 되죠. 어쩌면 평생 놓을 수 없는, 장자가 제게 던져준 화두 같은 말이죠.”

책 속의 미로에서 그녀는 그렇듯 자신을 비취본다. 겉으로 화려한 삶이지만 가장 소박한 거울을 꺼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옷들이 왜 그렇게 고즈넉하고 아름다운지 알려주는 비밀이 아닐까. **✎**

취재 김성중(객원기자)·사진 박신우 기자